

11/28/21

설교 제목: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간의 시내산 언약 체결

전하는 이: 김순배 목사

말씀: 출애굽기 24 장 1-18 절

(출 24:1)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칠십 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출 24:2)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아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출 24:3)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출 24:4)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열두 지파대로 열두 기둥을 세우고

(출 24:5)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출 24:6)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출 24:7)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출 24:8)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출 24:9)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칠십 인이 올라가서

(출 24:10)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 같이 청명하더라

(출 24:11)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뵈고 먹고 마셨더라

(출 24:12)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네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네게 주리라

(출 24:13)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출 24:14)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출 24:15)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출 24:16)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옛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출 24:17) 산 위의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 같이 보였고

(출 24:18)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사십 일 사십 야를 산에  
있으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시내 산 언약을 공식 체결합니다.

이로써 이스라엘 민족은 합법적인 선민이 됩니다.

언약 체결에 앞서 모세는 언약서를 낭독하고 백성들은 언약을 준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피 뿌림으로 언약을 정식 체결한 후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의 장로 칠  
십 인이 올라가서 하나님을 뵈고 친교의 식사를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공식적인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써 하나님의 관심과 보호 아래 머물게 되었으  
며 동시에 제사장 나라의 시민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실현하는 성별된 도구가 되었습니  
다.

본장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1-11 절까지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에 시내 산 언약  
을 기초로 한 공식적인 언약이 체결이 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고 12 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시  
내 산 언약이 공식 체결 된 이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친히 율법과 계명을 기록한 돌  
판을 주시기 위해 모세를 다시 시내 산으로 부르시고 이에 모세는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  
며 산상에서 40 일을 홀로 거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정식으로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 모세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아론 나답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칠십 명과 함께 시내 산 기슭까지 올라와  
멀리서 당신께 경배하게 한 후 모세만 당신 가까이 올라 오라고 하십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대제사장 아론의 아들들입니다.

(출24:1)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칠십 명과 함께 여  
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출24:2)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아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든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뵈면 죄인인 인간은 죽을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예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의 중보자로 삼으셨기에 그는 여호와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모세는 죄인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십계명은 모세와 온 백성이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들었으나 그 이후에 주어진 각종 율례는 모세 혼자서 여호와께로 나아가 들었기 때문에 모세는 자신이 들은 율례를 백성들에게 전달해야 했습니다.

(출24:3)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율례를 백성들에게 전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목소리로 그 모든 말씀을 지키겠노라고 응답하였습니다.

모세는 구두 언약으로 끝내지 않고 언약 의식을 거행합니다.

모세는 언약 의식을 거행하기에 앞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말씀을 기록하였습니다.

(출24:4)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열두 지파대로 열두 기둥을 세우고

모세가 단을 쌓은 이유는 율법 준수 언약을 체결할때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기 위함입니다.

희생 제사 곧 피 흘림없이 언약이 공식적으로 체결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열두 기둥은 하나님과 계약을 맺는 당사자인 이스라엘의 열 두 지파를 상징합니다.

모세가 열두 기둥을 세운 것은 율법 준수 언약을 체결한 것을 기념하고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여금 대대로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고대에는 쌍방간에 계약을 체결한데 대한 기념으로 돌 기둥을 세우거나 돌 무더기를 쌓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출24:5)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번제와 소로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번제는 하나님께 헌신과 충성을 다짐할 때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회복 및 화평을 위해 드렸습니다.

이 두 제사는 제사 제도가 확립되기 전부터 존재하던 제사였습니다.

따라서 이때 드러진 번제와 화목제는 과거부터 전해진 오던 형식에 준해 드러진 제사라고 하겠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이란 모세가 희생 제사를 준비를 할때 가축들을 다룰 수 있는 정결하고 건장한 젊은 이들을 가리킵니다.

(출24:6) 모세가 피를 취하여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단에 뿌리고

모세가 율법의 준수를 서약하기 위해 희생 제물의 피를 취했다는 것은 생명을 걸고 율법을 지킬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세는 피의 받은 단에 뿌리고 반은 백성들에게 뿌렸는데 이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같은 피를 나누는 유기적인 생명체로 연합되었음을 의미하는 동시에 계약 위반시 죽음을 뜻합니다.

(출 24:7)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리매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언약서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십계명을 받은 이후 시내 산에 올라가 백성을 대표하여 단독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율례를 기록한 것입니다.

모세는 이를 백성들 모두가 숙지할 수 있도록 낭독하였고 그것을 들은 백성들은 그 모든 말씀을 준행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출 24:8)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피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간에 체결한 언약을 공식적으로 성립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 언약의 피는 단순한 계약 체결을 위한 희생의 피라는 차원을 넘어 은혜의 피이며 속죄의 피가 되는 것입니다.

'언약의 피'는 죄인 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담대히 설 수 있게 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대한 예표입니다.

첫 언약의 중보자와 희생물은 각각 모세와 짐승이었으나 새 언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중보자인 동시에 희생물이 되신 것입니다.

언약을 비준한 후 모세를 비롯한 백성의 지도자들은 여호와께서 계시는 시내 산 앞까지 나아갔 습니다.

그러나 모세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지도자들에게는 시내 산 정상까지 올라가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 습니다.

(출 24:9)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칠십 인이 올라가서

(출 24:10)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 같이 청명하더라

이들이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보니'라고 하였는데 실제로 하나님을 본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영광스런 모습에 대한 상징적 표현입니다.

이들이 본 하나님의 모습은 하나님의 영광스런 보좌의 일부분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발아래가 '청옥'을 편 듯하다는 표현은 하나님의 성결과 거룩함을 나타내기 위함입니 다.

(출 24:11)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더라

계약 체결 후 공동 식사는 계약을 체결한 데 대한 상호 신뢰와 교제를 나타내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식사를 한 것은 피로 맺은 계약으로 말미암아 하 나님과 이스라엘 간에 교제가 회복되고 실제적인 관계가 확립되었음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손을 대지 않았다'는 말은 죽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지극히 거룩하셔서 아무라도 그분을 직접 볼 수 없으며 그 분을 본 자는 죽게 됩 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자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서도 죽 지 않았을 뿐더러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실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성도와 하나님 간의 교제가 영원히 회복되었음을 뜻하는 신약 시대의 성만찬 예식의 예표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 부르십니다.

(출 24:12)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너로 그들을 가르치려고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 판을 네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 당신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하여 새긴 언약의 돌 판을 주고(31:18) 성막 건축의 양식을 지시하기 위함이었습니다(25-31 장).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지음으로써 언약의 주체이신 하나님과의 교제의 길을 원천적으로 확보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직접 돌판을 준비하셔서 거기에 율법과 계명을 기록하여 주셨는데 이것은 양면에 글씨가 새겨진 두 개의 돌 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돌판은 아론의 금송아지 숭배 사건 때 분노한 모세에 의해 깨뜨려졌습니다.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만들어 주셨지만 나중 것은 처음 것과는 달리 모세에 의해 만들어진 판에 하나님이 글을 새겨 주신 것입니다.

(출 24:13) 모세가 그 종자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종자는 시종드는 사람입니다.

여호수아는 후에 모세의 후계자가 되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인물입니다.

이때부터 모세의 충실한 일꾼으로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산'은 호렙 산 즉 시내 산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이 산에서 모세를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로 부르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생활에 규범이 되는 율법을 주셨습니다.

(출 24:14)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모세는 자신이 하나님께 올라 갔다가 돌아올 때까지 백성들을 다스릴 지도자로 '아론과 훌'을 지명했습니다.

'아론과 훌'은 아멜렉과 전쟁시 장시간의 기도로 기력이 쇠한 모세의 양팔을 떠받쳐 줌으로써 모세를 보필하였던 자들입니다.

'일이 있는 자'는 분쟁으로 인해 논쟁이 발생한 이해 당사자를 말합니다.

(출 24:15)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육 일 동안 산을 가리더니

(출 24:16) 제 칠 일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구름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인도한 그 구름으로 하나님의 현현이며 영광의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모세를 산으로 부르신 후에 6 일 동안 침묵하셨습니다.

그동안 모세는 기도와 명상 가운데 대기 상태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새기신 언약의 돌 판을 받기 위해서는 이런 준비 기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는 그 의미를 깨닫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신앙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교훈합니다.

(출 24:17) 산 위의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 같이 보였고

하나님의 영광의 현현에 대한 묘사입니다.

(출 24:18)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사십 일 사십 야를 산에 있으니라

모세는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하신 언약의 돌 판을 받기 위해 시내 산에서의 6 일 동안의 대기 기간을 포함해 40 일을 시내 산에 머물렀습니다.

모세는 이 기간 내내 온전히 금식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신 9:9).

성경에서 40 일이란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모세가 두 번째로 십계명을 받을 때도 40 일간 머물렀고 엘리야가 호렘 산까지 여행한 기간도 40 일이었으며 예수님이 광야에서 금식하며 마귀의 시험을 받은 기간도 40 일이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후 광야를 유랑한 기간도 40 년이었습니다.  
이렇게 볼때 40 이라는 숫자는 고난과 시련을 통해 믿음을 연단하는 기간으로 간주가 됩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그 시간을 견디어 내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선조인 욥도 하박국도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 절규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기간을 오히려 더 큰 믿음으로 승화시켰습니다.  
밤이 어두울수록 별은 더 빛나는 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을 절망이라고 단정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 꼭 필요한 연단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지금은 보이지 않고 들을 수 없지만 지나고 뒤돌아 보면 세심하게 하나하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1945 년 한 유대인이 유대인 포로 수용소 벽에 써 놓은 글을 소개합니다.

나는 태양이 비치지 않을 때에도 태양이 있는 것을 믿는다.  
I believe in the sun even when it's not shine.  
나는 사랑을 느낄 수 없을 때에도 사랑이 있는 것을 믿는다.  
I believe in love even when I don't feel it.  
나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  
I believe in God even when God is silent.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하나님 말씀입니다.